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土)	2(日)
 맑은 뒤 흐림 8/19°C	 구름 많음 10/19°C

**News**

- 금융시장 '숨고르기' ②
- 보성서 또 여행객 실종 ③
- 축구 해외파 4인방 출격 ⑧

**Books**

- 금융 위기 '블랙스완' ⑭

**Entertainment**

- 아줌마 파워 ⑧



- 가을, 멜로에 빠지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누에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대학서 강의 하는 중학 중퇴 '배무이'

〈배 목수〉

목포 신영수씨 50년 '외길 인생' 화제

중학교 중퇴 학력에 47년 경력의 '배무이(배 목수)'로 목선 150여척과 FRP(합성섬유강화 플라스틱) 400여척을 만들어 오면서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는 외길인생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목포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신영수(61)씨. 배무이는 북한에서 조선 일을 '배를 뚫는 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50년대 초, 목포시 온금동에는 북한 피난민들이 배를 만들며 모여 살았다. 살길이 막막하던 시절, 아버지가 선박용 목재 제재소에서 일을 하던 터라 신씨의 발걸음도 자연스레 그곳으로 옮겨졌다. 아버지는 배무이 가운데 유일한 목포 출신. 조선소 잡부로 일을 하게 된 신씨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손수 깎고, 못을 박고, 대패질을 하는 등 고된 일을 인내로 이겨냈다.

당시 목포에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설



47년 동안 배 목수 한 길을 걸어온 신영수씨가 직접 건조한 FRP선박 외면을 다듬고 있다.

계에 학업 포기... 배 만든 일 전념

신영조선소 운영... 500여척 만들어

목포대서 '모형선 제작' 6년째 강의

계사인 강대현씨는 그의 성실성을 인정해 3년째 되던 날 공구봉을 건네주며 배를 설계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신씨는 그 3년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인정받는 설계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일일이 짜 맞추던 목선은 반영구적인 FRP배의 위력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목선을 만들던 수많은 인부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하지만 그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FRP선을 만들기 위해 나무로 배틀을 만들어 내는 목형을 완전하게 습득, 전국 곳곳의 주문을 소화해냈다.

신씨는 1988년 목포에 '삼아조선소'를 설립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며,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연매출이 10억원을 웃돌 정도였다. 그러나 또 한번의 시련이 닥쳤다. 1997년 IMF가 닥친 그해, 전기누전으로 회사는 전소되고 말았다.

그는 배와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

을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홀출 털고 일어섰다. 그 때 아내가 보듬어주며 일했다. 술자리가 생기면 "약속 있다"며 피하기도 했고, 밤 때가 되면 "먹었다"고 도망가기도 했다.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한다.

신씨는 1998년 '신영조선소'로 이름을 바꾸고 FRP 배를 만드는 배무이로 새출발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배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조선소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2002년 목포대에서 해양공학과 강의 의뢰가 들어왔다. 중학교 중퇴 학력의 배무이가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이다. 과목은 '모형선 제작'. 신씨가 강의 노트를 꺼냈다. 모두 일곱 페이지.

"여기에 내 인생이 다 있어요. 이거면 배 만들죠. 나머지는 다 내 머리에 있고" 종살이하며 배웠던, 그리고 조선소를 불태워 보내며 배웠던 이룬을 학생들에게 다 가르쳤다. 올해까지 270명이 그에게 배를 배웠다.

"늘 강조해요. 정석을 먼저 배우라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라고." 지난 6월부터는 목포해양대에서 레저선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부인 박유임(60)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둔 신씨는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직 배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08 아시아문화포럼' 성황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주최한 '2008 아시아문화포럼'이 지난달 31일 광주 리마다 호텔에서 열렸다. '유럽 문화도시와 아시아문화콘텐츠를 통해 본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국·내외 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 4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비수도권 '수도권 정책' 반발 확산

지역 시민단체 등 철회 촉구... 14일 시도지사협의회 대규모 집회도

정부의 10·30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반발이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 경제계, 사회 전반에 걸쳐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부·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31일 비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균형발전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

가 불균형은 물론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집중 성토했다. 여야 특위위원 모두 "수도권의 집중 폐해가 큰 상황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개방하는 것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황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면에 계속〉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공무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광주·전남서 11~13명 확인

쌀 직불금을 수령한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이 자격도 없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80% 정도 마무리됐으며, 현재까지 분청에서만 5~6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역시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70% 정도 진행된 가

운데, 현재까지 분청에서만 6~7명이 자격이 없는데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2개 일선 시·군에서도 상당수 공무원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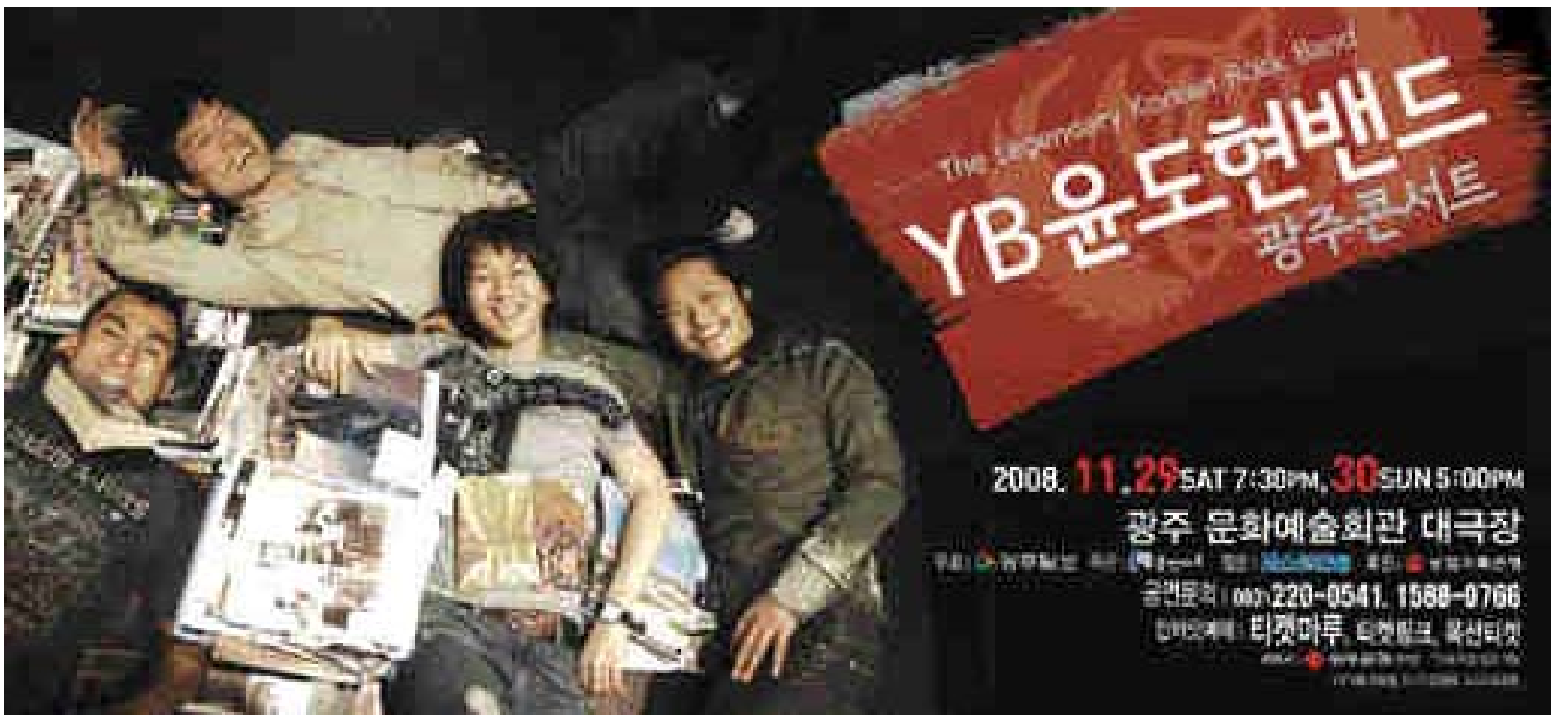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조사와 관련, 각 기관별로 현지조사를 벌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에 따라 보고 기한을 14일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신고가 마무리된 지난 27일부터 감사부서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광주

시에서는 분청과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 소속 546명이 10억6천600여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 했으며, 전남도에서는 분청과 산하 공공기관, 22개 시·군에서 4천226명이 125억6천600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홍형기·윤영기기자 redplane@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정연한의원  
광주 성북구 마곡동 50



**YB윤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